

[동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기동 구례군수

“성삼재 케이블카 올해는 꼭 설치”

“올해에는 남도의 관광과 유흥, 레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11일 인구 2만 1천여명의 초미니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으로 관광을 강조했다. 서 구례는 “지리산을 끼고 군이야기로 관광개발자로 적극”이라며 “지리산 생태숲과 수목원, 자생식물원, 야생화 테마랜드, 운동주 산림 생태육장 조성 등에 오는 2013년까지 총 33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레저스포츠 동호인과 전자훈련 험장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모색한다.

관광·휴양도시 도약

서 구례는 특히 지리산 온천에서 성삼재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구례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지난 1990년 수립된 지리산 온천 관광 조성 계획에 포함돼 당시 주부부처인 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

경부로 이관되면서 보류됐고 1997년과 2001년, 올해 등 세 차례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군민 숙원사업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레저스포츠 동호인과 전자훈련 험장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모색한다.

오이·밀·산수유 명품화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생명체 학교 등을 도농 교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오이와 우리 밀, 산수유와 녹차 등을 명품화 지역 특산품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관련, 서 구례는 ▲하우 사육단지와 체험형 시범목장, 지리산 치즈 체험랜드 등 조성 ▲간접 농공단지 활성화 ▲



휴·폐업 중인 개별업자에 기업 유치

▲ 용방동 공단지 2010년까지 조성 등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설시장과 구례 5일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동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폐쇄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봉남·봉북 및 터미널 도시계획도로 조성 ▲간접 농공단지 활성화 ▲

시범가로 경관정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 구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방광권역과 피아골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저소득, 틈새계층 등을 위한 희망구례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복지 시책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촌 개발 단계적 추진

서 구례는 “친환경 녹색 성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사는 구례”가 될 수 있도록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600여명의 공직자들도 구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 기자 dhkim@



보성 벌교읍 추동리 박정한씨 부부가 12일 겨울 성수기를 맞아 오이를 수확하고 있다. 미을 주민 150여명은 부농영농조합(bn.invil.org)을 결성해 ‘녹차오이’라는 브랜드로 인터넷 직거래와 대형마트 등에 출하하고 있다.

/보성=선상근 기자 sun@

순천시 인사 ‘측근 쟁기기’ 공방

시민단체 “물의 빚은 공무원을 승진”

시 “전국 최고 청렴 도시…대꾸 않겠다”



보성읍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착공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예산 조기 집행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보성읍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착공식(사진)을 가졌다.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흥동산은 3만m² 규모로 체육시설, 산책로, 주차장 시설이 들어서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조성 농공단지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도

조기에 밸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유치가 확정된 벌교포리아 아울렛 건립 등 민자 사업들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보성=선상근 기자 sun@

‘숲가꾸기’ 전남도·산림청 우수상

구례읍·낙안읍 각각 생가 보존 대립

국창 송만갑 선생 출생지 논란

만감 선생은 13세에 소년 명창으로 명성을 날렸고 20대에는 가문의 전통소리 담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창법을 개발, 창극단체인 협률사를 조직해 삼남 일대 지방 순회 공연 등을 통해 판소리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경술국치(한일합방) 후에는 판소리 교육에 전념하면서 장관, 박중근, 박봉래, 김소희, 박봉술, 강도근 등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으며 1923년 조선 성악 연구회를 설립, 후진 양성에 힘썼다.

선생의 소리는 고종 황제가 감복해 즉석에서 사헌부 정6품의 벼슬인 감찰직을 제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뛰어났으며 1913년부터 1935년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작된 선생의 소리 음반은 근대 판소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 기자 light64@

곡성군 녹색 성장 운동 잇단 수상

‘숲가꾸기’ 전남도·산림청 우수상

곡성군이 녹색 성장 운동 사업에 서 연거푸 상을 받으면서 이 분야 선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남도가 평가한 숲가꾸기 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산림청의 2008년 녹색 경쟁성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전남 우수상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기준에 양맞은 적정 사업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으로, 삼 사업비는 6억 원이다.

또 산림청이 주는 전국 우수상은 2007년 10월부터 시작한 곡성 IC

부터 곡성읍까지 8km 구간 소나무 특화 숲 가로수 조성 사업과 곡성을 학정리~영운천 간 도시숲 조성 사업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응모해 거둔 결실이다.

곡성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올해는 30억 원을 들여 삼진강 마라톤 코스 길과 곡성을 학정교~죽곡면 하한리 강변길에 단풍·느티·배롱·철쭉 등을 심는 등 녹색 성장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순천시 인사 ‘측근 쟁기기’ 공방

시민단체 “물의 빚은 공무원을 승진”

시 “전국 최고 청렴 도시…대꾸 않겠다”

보성읍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착공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예산 조기 집행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보성읍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착공식(사진)을 가졌다.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흥동산은 3만m² 규모로 체육시설, 산책로, 주차장 시설이 들어서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조성 농공단지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도

조기에 밸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유치가 확정된 벌교포리아 아울렛 건립 등 민자 사업들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신흥동산 공원화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보성=선상근 기자 sun@

‘숲가꾸기’ 전남도·산림청 우수상

‘숲가꾸기’ 전남도·산림청 우수상

곡성군이 녹색 성장 운동 사업에 서 연거푸 상을 받으면서 이 분야 선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전남도가 평가한 숲가꾸기 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산림청의 2008년 녹색 경쟁성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전남 우수상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기준에 양맞은 적정 사업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으로, 삼 사업비는 6억 원이다.

또 산림청이 주는 전국 우수상은 2007년 10월부터 시작한 곡성 IC

부터 곡성읍까지 8km 구간 소나무 특화 숲 가로수 조성 사업과 곡성을 학정리~영운천 간 도시숲 조성 사업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응모해 거둔 결실이다.

곡성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올해는 30억 원을 들여 삼진강 마라톤 코스 길과 곡성을 학정교~죽곡면 하한리 강변길에 단풍·느티·배롱·철쭉 등을 심는 등 녹색 성장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신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로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신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로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신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로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모신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점